

## 러시아, 동유럽 에이즈 확산 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가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가장 빨리 늘어나는 나라로 나타났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보고서에서 이들 3개 나라의 경우 백 명 가운데 1명꼴로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UNDP는 이에 따라 세 나라는 보건지출이 국내총생산의 1%에서 3%로 늘었고 경제성장률도 1% 정도 떨어졌다고 전했다. (YTN 2004년 2월 18일)

## 가족보건복지협회, 베트남 청소년 HIV/AIDS 예방사업 실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이시백 회장)는 인구개발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베트남 청소년에 대한 HIV/AIDS 예방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베트남 청소년을 위한 HIV/AIDS 예방사업으로 베트남 가족계획협회 생식보건센터에 에이즈 검진 상담소를 설치하고, 청소년 에이즈 예방 클럽 및 에이즈 환자 클럽을 조직해서 에이즈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욕 40대 남성 4% 에이즈 감염

미국 뉴욕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의 약 4%가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했다. 특히 맨해튼 지역에선 성인 남성의 약 3%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로 드러났으며, 뉴욕시 전체에선 주민의 1%에 이르는 7만5천여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이미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해럴드 제프 담당관의 말을 따르면 "이는 대단히 충격적인 수치"라고 전하고, "조사자료가 2001년 기준인데다 검사를 받지 않은 이들은 통계 자체에서 빠져 있어,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4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

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약 90만 명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65%가 남성이지만 최근 들어 여성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한겨레 2004년 2월 11일)

## 에이즈 치료제가 바이러스 내성 증가시켜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가 산모에서 신생아로 전염되는 것을 막는데 널리 쓰이는 '네비라핀'이 단 한차례 투약으로도 바이러스의 내성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고 USA 투데이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레트로바이러스·기회감염학회 설립 11주년 회의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전염병학회(NICD)의 날 마틴슨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해 파문을 던졌다고 전했다.

NICD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여성 456명과 이들이 낳은 아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네비라핀을 단 한번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산모의 38%, 신생아의 42%가 네비라핀 내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내성을 갖게 된 HIV가 에이즈에 걸린 산모나 신생아의 체내에서 최소 36주 동안 잔존한다는 실험결과를 함께 얻었다고 전했다.

1999년 개발된 항바이러스성 치료제인 네비라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3개 에이즈 치료요법 가운데 하나로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가 뛰어나 개발도상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네비러파인은 HIV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산모에게 출산 중 투여하거나 신생아에게 투약하면 신생아의 HIV 바이러스 감염률을 33%에서 15%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렸다.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네비러파인과 또 다른 에이즈 치료제인 AZT 등을 이용한 복합치료요법으로 산모-신생아간 에이즈 발병률이 2%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250만명에 이르는 에이즈 감염 임산부 가운데 이같은 복합치료요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이사벨 드 조야사는 WHO가 지난주 이같은 연구 결과를 이미 알았으며, 그러나 이보다 규모가 큰 연

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네비러파인 투약을 지원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캔퍼런스에서는 AZT를 단독으로 처방했을 때는 6.5%에 이르던 산모-신생아간 HIV 전염률이 네비러파인을 함께 처방할 경우 2%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태국 연구진의 연구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프랑스 파리의 발달조사연구소(IRD) 설립자인 마르 할러망은 태국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들 2개약을 동시에 처방하는데 드는 비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뉴스 2004년 2월 20일)

## 加 퀘벡 주, “의사들은 HIV 감염사실 의무적으로 통보하라” 법안 준비

캐나다 퀘벡 주는 의사가 HIV(에이즈 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이 사실을 병원 측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의학저널' 최신호가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캐나다에서 HIV에 감염된 한 소아과 의사가 에이즈로 사망한 후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일어났다.

지난 10여년간 소아과에서 수술을 담당했던 마리아 로렌조라는 의사는 1990년 한 어린이 환자로부터 HIV에 감염되었고, 이를 병원 측에 알린 후 2003년까지 계속 환자들을 돌봐오다가 휴가를 얻어 병원을 떠났다. 그러나 작년 9월 로렌조 의사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올해 초 동료 의사를 통해 병원 측에 알려졌고, 병원 측은 그 동안 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던 1200명의 환자에게 HIV 감염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했다.

그 후 이에 항의하는 전화가 병원에 쇄도하였고, 여론의 비난도 끊이지 않자 퀘벡 주 보건당국은 HIV 혹은 기타 감염성 질환에 걸린 의사는 반드시 병원이나 관계 당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게 되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연방정부 보건성 장관은 “의사들에게 의무적으로 HIV 감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캐나다 의학협회 측은 “의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자신의 HIV 감염 사실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만약 의사 자신

## 항문성병 늘어

항문 성병은 여성보다 성인의 인구가 증가 등 고위험 피어의 성병은 늘고 있다. 반면 원형균임포미, 항문 성기 주위의 단순포진, 에이즈 등 신병 성병은 증가일보다 감소함과 동시에 감소할 가능성은 새로운 성병 증종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항문성고라면서 항문과 직장의 전파는 여성의 질 부위 전파에 비해 훨씬 쉽게 성치를 입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항문성병 중 제일 흔한 장문균임포미는 앞으로 악화할 수 있다. 실제로 에이즈 환자 중 절반은 남자가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균성 항문직장염, 항문직장 폐색, 단순포진 환자도 어렵게 볼 수 있다.

항문성병을 단순 치질로 오인하기 일쑤다. 발견이 늦을 수밖에 없는 데다 대변과 분기도 이러한 구식인 만큼 치료가 늦어져 화를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출혈, 고통을 주는 것은 집합이라 파트너와 함께 치료받지 않으면 완치도 어렵다.

저녁은 대개 원균의 12시 방출(신병) 혹은 6시 방출(후병)에서 발생한다. 타발성 지열이 여러 균에 생겼다면 항문성고가 원인이다.

김 원장은 “직장 삼막 손상, 출혈, 직경 농양, 기생충 감염, 장내 사균 및 감염, 원균-구멍 성고로 인한 감염도 가능하므로 임상관리에 철저할 것”을 주문했다. (세브란스병원, 김 원장)

이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병원윤리위원회와 상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의사가 HIV에 감염되었을 경우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병원 측에 알릴 필요는 없지만, 다만 HIV와 같이 심각한 감염성 질환에 걸렸을 경우 자격을 갖춘 동료들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HIV에 감염된 의사가 1년 동안 진료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인의 HIV 감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어 캐나다 정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 2004년 2월 9일)

## 성병환자 에이즈감염률 높아

에이즈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 성적 접촉을 하거나 수혈 등을 통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그러나 동성연애자라고 무조건 에이즈에 걸리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감염자일 경우에 한해 감염을 위험이 있다. 최근에는 동성연애자뿐 아니라 이성연애자층에서 에이즈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성병에 걸린 사람은 이미 치료를 받았거나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의 소지가 더 크다.

예를 들어 매독 등 성병에 걸리면 피부나 점막이 짓무르면서 상처가 나게 되는데, 만약 상처가 생기기 주위에 생기기 되면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가 체내로 침투해 감염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임질이나 클라미디아의 경우도 염증을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대방이 에이즈 감염자일 경우 혈액뿐 아니라 정액·질분비물 모두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감염자와의 오раль섹스를 하면 입안에 있는 점액선 세포들이 침포선이나 혈관으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운반하게 되므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입속에 사정하는 오раль섹스는 한층 더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항문성교를 하게 되면 항문에 상처를 입어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이 더욱 커진다. 항문성교를 할 때는 콘돔을 사용한다 해도 찢어질 위험이 크므로 조심해야 한다.

깊은 키스를 나누다 보면 입과 입술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감염자로부터 상대방의 입으로 에이즈 바이러스가 옮겨져서 입안의 상처나 염증을 통해 몸속으로 전염될 수 있다.

(국제이 2004년 2월 2일)

## 의료인 HIV 노출사례 빈번

국내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실수나 부주의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에이즈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에이즈 감염자 수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모두 535명이 에이즈 감염자로 새로 확인됐으며, 이는 2002년 대비 34.4%가 증가한 수치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누적 감염자는 총 2540명으로 이들 가운데 516명이 사망했고, 2024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연간 100여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99년 들어 189명으로 급증, 2000년 219명, 2001년 327명, 2002년 398명, 2003년 535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처럼 에이즈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횟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감염내과 강문원 교수가 2000년부터 2001년 8월까지 전국 14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92년부터 최근 10년간 의료인의 에이즈 바이러스(HIV) 노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자를 치료하다가 HIV에 노출된 의료인 이 총 48명에 달했다.

HIV에 노출된 의료인들 가운데 의사는 20명, 간호사가 22명, 임상 병리사 3명, 기타 3명 등이었다.

HIV 노출경로는 48명 중 35명이 에이즈 환자의 혈액 채취에 사용한 주사 바늘이나 통합용 바늘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난 92년부터 99년까지 HIV

노출된 의료인 수는 연간 3명 미만 수준에 불과했지만 2000년 들어 그 수가 12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2001년 상반기에는 23명이 HIV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에이즈 감염자 수의 증가와도 그 궤를 같이한다.

즉 HIV에 노출된 의료인 수가 늘기 시작한 시점(2000년)과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한 시기(1999년)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뉴스시사 2004년 2월 6일)

## WHO, 북한에 에이즈 예방프로그램 실시

세계보건기구(WHO) 북한주재 대표 아이길 소렌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북한 전역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중국 등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서는 에이즈 감염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례가 없다면서도 감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CBS 뉴스 2004년 1월 31일)

## 일본서 첫 수혈 통한 HIV감염자 발생

일본 후생노동성은 20일 일본 적십자위원회의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를 통과한 혈액을 수혈한 환자 1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확인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1999년 헌혈 혈액에 대한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가 도입된 후 헌혈자의 혈액 수혈을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일본적십자위원회의 검사결과 문제가 된 헌혈자의 혈액과 수혈자의 혈액내 에이즈 바이러스 유전자 배열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혈액은 작년 5월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반응을 보여 환자에게 수혈됐다.

후생노동성은 그러나 수혈을 받은 사람이 11월 다른 환자에게 헌혈을 하려 했으나 에이즈 바이러스에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보관해 놓았던 다른 혈액샘플을 다시 정밀 검사한 결과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4년 1월 20일)

|    |    |    |    |    |    |
|----|----|----|----|----|----|
| 1  | 2  | 3  | 4  | 5  | 6  |
|    |    | 7  | 8  | 9  |    |
| 10 |    | 11 | 12 |    |    |
|    |    |    |    |    | 13 |
|    | 14 |    |    | 15 | 16 |
| 17 |    |    | 18 |    |    |
|    |    | 20 |    | 21 | 22 |
| 23 |    |    | 24 | 25 |    |
|    |    | 26 |    | 27 |    |

### 가로열쇠

- ① 속세를 떠나 아무런 속박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④ 명부에 하나하나 점을 찍어-기면서 사람들의 수호를 조사하는 것 ⑦ 남의 어머니의 존칭 ⑨ 산에서 나는 식물 ⑩ 일교세의 어원으로 동국한 한국 여성 ⑫ 누드족 ⑬ 도로 돌려보내는 것 ⑭ 왕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로 하는 학문 ⑮ 바둑이냐 장기이냐 핀국의 온경을 좌우하는 경우에 결단을 내려서 두는 수 ⑯ 나무의 표면을 반반하고 굵게 깎는 연질 ⑰ 푸성귀의 곁곶질 ⑱ 밭잡이나 밭집, 갈대 따위로 시뻐운 인 집 ⑳ 이름 난 사수 ㉑ 붉은 점이 있는 비취목 ㉒ 성공과 실패 ㉓ 서벽 밑을 지은.

### 세로열쇠

- ② 세상에 이름이 나 있는 탓으로 당하는 곤욕이나 불편 등을 수 뇌겨 이르는 말 ③ 장실이 낳은 아들 ⑤ 타이완의 원주민, 인도네시아에서 개,의 정착하였음 ⑥ 돈으로 사거나 팔지 않고 직접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일 ⑧ 도유류 말과의 한 종, 말과 비슷하지만 작으며 앞머리와 긴 털이 없고 겨가 길다 ⑩ 윤명이 기박한 것 ⑪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지은 4대 비극의 하나에 등장하는 왕 ⑫ 나라의 밤을 ⑬ 배관을 잡는 것 ⑭ 개구리 발 ⑮ 사람으로서 용인히 지켜야 할 도리와 명분 ⑯ 무엇을 지니거나 지병하는데 드는 비용 ⑰ 개인적인 욕망에 집착하여 자기단을 내세움 ⑱ 우수한 성공이나 성취 ⑳ 농산물 시장이 있는 경남의 동네 ㉑ 옥으로 만든 임금의 인

### 재난호 정답

|      |      |     |
|------|------|-----|
| 비상구  | 민    | 낙화임 |
| 중압감  | 성    | 석   |
| 별궁   | 오대양  |     |
| 권석재판 | 치    |     |
| 장출   | 소기병  |     |
| 업    | 일자부식 |     |
| 장학생  | 민영환  |     |
| 명부   | 유원지  | 장   |
| 사각모  | 사    | 같이  |